



Hello! I am Sister Marian Grace Brandt. I was born in Pittsburgh, Pennsylvania in 1936, the 2<sup>nd</sup> child of Mary Grace and Joseph Brandt. My brother Francis was five years older than I and was always very protective of me.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at age 17, and two weeks later was sent out to teach fourth grade at St. Stephen in Hazelwood. Two years later, after the Novitiate, I taught in Scottdale, PA grades 4 through 7 and started a choir. From there, I went to California where I taught 8<sup>th</sup> grade.

For forty years, I was principal in 5 different schools: In the East: St. Kieran, Pittsburgh, PA, Greensburg Catholic Middle School, in Greensburg, PA and St. Regis, in Trafford PA. My education in those years included degrees from Seton Hill College, Duquesn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In the West: St. Pancratius in Lakewood, California, St. Theresa, in Phoenix Arizona. A highlight of my time in Arizona

was a three-week trip to the Holy Land, Rome, and Ireland led by the pastor at St. Theresa. My longest assignment



was at Our Lady of Perpetual Help in Scottdale, Arizona from 1991 to 2017 where I was blessed to work with all five pastors from the first pastor, Father Eugene Maguire to the present pastor, Father Gregory Schlarb.

I always have been a very athletic person. I have included a picture of me shooting baskets at lunch time outside the ramada in Scottdale where students ate at lunch time. I also joined these students at family roller skating once a month. I had my own shoe skates that I gave them away when I left.



I retired from education in 2012 and spent the next years coordinating Baptism ministry at Our Lady of Perpetual Help. In 2017, I came to live at Doran Hall and now at Caritas Christi.



It has been a wonderful adventure, being a Sister of Charity and being involved in the education of so many parents and students!



안녕하세요! 메리언 그레이스 브랜트Marian Grace Brandt 수녀입니다. 저는 1936년에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어머니 메리 그레이스Mary Grace 와 아버지 조셉 브랜트Joseph Brandt 슬하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보다 다섯 살 위인 오빠 프랜시스Francis는 항상 저를 잘 돌보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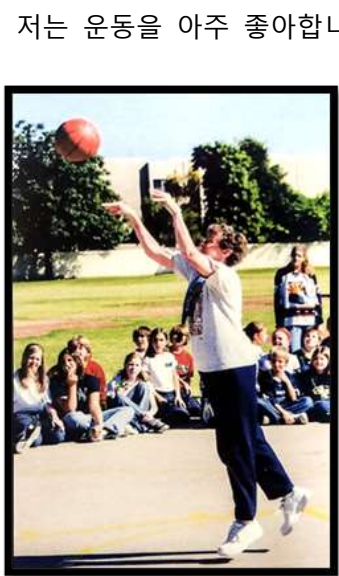
저는 열일곱 살에 수녀회에 입회하여 입회 2주 만에 헤이즐우드Hazelwood의 성 스테파노St. Stephen 학교로 파견받아 4학년을 가르쳤습니다. 2년 후 수련기를 마치고 펜실베이니아주 스코트데일Scottsdale에서 4학년부터 7학년까지 가르치고 합창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캘리포니아주로 파견받아 8학년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다섯 학교에서 교장직을 맡았습니다. 동부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성 키에란St. Kieran 학교, 그린스버그 가톨릭 중학교Greensburg Catholic Middle School, 트래포드Trafford의 성 레지스St. Regis 학교에서 근무했고, 그 기간 동안 씨튼힐 대학과 듀케인 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공부하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레이크우드(Lakeview)의 성 판크라시오St. Pancratius 학교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성 테레사St. Theresa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지낼 때 성 테레사 본당 신부님이 인솔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 아일랜드를 거쳐 다녀온 3주 동안의 여행은 애리조나에서 보낸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몸담은 사도직은



애리조나주 스코트데일Scottsdale의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Our Lady of Perpetual Help 학교입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첫 주임사제인 유진 맥과이어Eugene Maguire 신부님부터 현재 그레고리 실라브Gregory Schlarb 신부님까지 총 다섯 명의 신부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래 사진은 스코트데일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 정자 옆에 있는 농구장에서 제가 슛을 던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학생들과 함께 롤러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제가 가진 롤러스케이트는 학교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남겨 주고 왔어요.



2012년에 학교에서 은퇴하고 그다음 몇 년 동안은 도움이신 성모 본당에서 세례 준비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그린스버그의 도란홀로 왔고 지금은 카리타스 크리스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녀가 되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며 살아온 삶은 참으로 멋진 모험의 여정이었습니다!